

송미령 장관, 사과 수급 및 생육 상황 현장 점검

안동시 소재 APC 찾아 사과 수확·선별·출하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우박 피해 사과 재배 농가 과수원 피해 복구·지원 및 생육 상황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등 주요 과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지유통 현장을 찾았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대경사과 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및 출하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우박 피해를 입은 사

과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 및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APC에서 사과 선별·포장 작업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3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보다 1.6배 확대해 총 16만3천t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590억원의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을 비롯해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할인 행사를 추진해 추추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13대 추석 성수품은 사과·배를 비롯해 배추, 무, 양파, 마늘, 애호박, 소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현장을 안내한 APC 관계자는 “7~8월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지만 추석 성수기인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지난달 31일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신속한 피해 조사와 손해 평가 등을 통해 추석 전까지 복구비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과일 성수기를 맞아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막바지 생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사과와 배를 비롯한 주요 과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확기까지 생육관리협의회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8월 호우·폭염·우박·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와 복구비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식품부 전경

동오시드, 차세대 오이 신품종 ‘다복향’ 본격 출시

저온신장성·내병성·안정성·상품성으로 네 가지 전달

국내 오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품종 경쟁력을 입증해온 동오그룹의 종자 전문 브랜드 동오시드가 대표 백다다기 오이, ‘설향’ 품종의 명성을 잇는 차세대 신품종 ‘다복향’을 본격 출시하며 겨울 오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신품종은 기존 ‘설향’ 품종이 가진 우수한 외관 상품성과 재배 안정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동시에 현장 농가에서 보완 요구가 높았던 흰가루병·노균병 복합내병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한파에 따른 생육 저하와 고습한 하우스 환경 속 병해

충 발생이 겨울철 시설 오이 재배의 핵심 난제로 꼽히는 만큼, 동오시드의 ‘다복향’은 뛰어난 저온신장성으로 생육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 번째 복, 흰가루병과 노균병을 강력 차단하는 복합내병성의 두 번째 복, 중장과형 과형으로 저온기 단과 발생을 줄여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하는 세 번째 복, 짙은 어깨색과 연녹색 바탕으로 높은 시장 선호도를 자랑하는 우수한 상품성의 네 번째 복을 차례로 담아내어 겨울 오이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복향’의 첫 번째 강점은 탁월한 저온신장성이다. 저온 환경에서도 조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마디 간격(절간)이 짧아 재배 및 유통 관리가 대단히 수월하다.

겨울철 한파나 저온 스트레스 속에서도 멈춤 없이 안정적인 생육을 이어갈 수 있어, 겨울철 시설 하우스 재배 시 발생하기 쉬운 생육 지연이나 작황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높은 재배 안정성을 제공한다.

시설 오이 재배의 최대 걸림돌인 병해 대응 능력도 대폭 진화했다. ‘다복향’은 시설 오이 포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흰가루병과 노균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약제 방제 부담과 인력 소모를 크게 줄여준다. 기존 ‘설향’을 재배하면서 내병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농가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병해 걱정 없는 고품질 오이 생산을 가능하게 돕는다.

외관 상품성 역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어깨 색이 짙고 바탕색은 선명한 연녹색을 띠지만 아니라, 과형이 깔끔하고 균일하여 산지 공판장과 도매시장에서 선호하는 고품질 외관 요소를 완벽히 충족한다.

뛰어난 외관 경쟁력을 바탕으로 출하 시 높은 경락가를 형성할 수 있어 농가의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농협중앙회, 5급 신규직원 공개 채용 실시

일반·보훈·IT·기술 분야 채용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해 2026년 5급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 ▲보훈 ▲IT ▲기술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며,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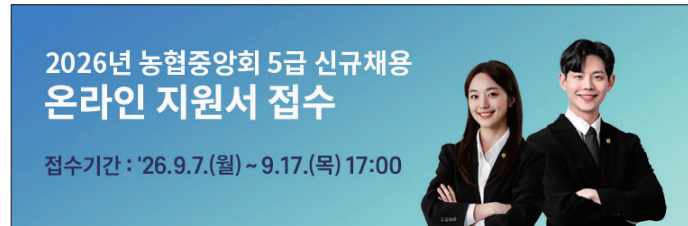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연령,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을 적

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한다.

한편, NH농협은행과 NH농협손해보험도 9월 중 신규직원 채용을 진행하며, 전국 농

축협의 신규직원 채용도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9월 7일 17시부터 17일 17시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경 기자
ktya0712@daum.net



▲농협중앙회 제공

농정원, 세종수목원에 텃밭 조성... ESG 실천 나서

임직원, 배추·무 등 가을 작물 직접 재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임직원들이 직접 가꾸는 텃밭을 통해 ESG 경영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한다.

농정원은 지난 8일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에 텃밭을 조성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ESG 실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윤동진 농정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은 배추와 무, 쪽파, 당근 모종을 심었다. 수확한 작물은 김장으로 담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를 수행해 온 농정원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조직 내부에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원 소재지인 세종의 국립세종수목원과 협력해 생활정원 내 유휴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협력 모델로서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들은 도시농업관리사로부터 가을 작물 재배법을 교육받은 뒤 텃밭 조성에 참여했다. 약 1시간 만에 10개 베드에 모종을 심었으며, 앞으로 텃밭로 주 1회 텃밭을 찾아 물주기와 작물 관리 등을 맡는다. 11월 수확까지 재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수확철인 11월에는 세종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연계해 작물 수확과 판매 체험도 진행한다. 수확한 농작물은 김장으로 담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며 지역 사회 나눔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임직원이 심고 기르고 나누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ESG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해설과 교육, 지도, 기술 보급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국가전문자격이다.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출 ▲외교부 미국 주재관 김민정

◇ 전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술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박희영 ▲소비자위해예방과 위해예방정책과장 최지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담행위긴급대응단장 이제명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장 정형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장 정지윤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임상우 ▲바이오생약국 의약품정책과장 성주희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인증TF팀장 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김현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이우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첨단분석과장 이화정 보건연구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백남이

◇ 전보 ▲소비자위해예방과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 이승철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 메 일 press@nongupl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l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간·판권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국독신청·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